

SPECIAL REPORT **중앙SUNDAY·興勢齋** 공동기획 세계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

## 中國 共產黨

1921년 창당된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이제 100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구식 자본주의·민주주의가 거센 도전에 직면한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의 장수 비결이 궁금하다. 내년 가을 최고 지도부 개편이 이뤄지는 제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공산당이 국가의 엘리트를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이들을 교육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내년 중국 19차 당 대회 지도부 개편, 시진핑의 선택은

## 7상8하 걸린 왕치산 유임, 브레인 왕후닝 상무위원

(67세 유임, 68세 은퇴)

이민규 여시제 연구원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는 1982년 제12차 때부터 5년에 한 번씩 열려왔다. 당 대회는 향후 5년간의 국정 과제와 중점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권력의 최고지도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인사 변동을 공표함으로써 차기 중국 정치권력 구조의 향방을 그려 볼 수 있는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회의다.

내년 가을에 열리는 제19차 당 대회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7상8하(七上八下)’ 관례를 따를 경우 상무위원 7명 중 무려 5명이 교체되고 그중 1명은 2022년 제20차 당 대회에서 차기 총서기를 맡을 후보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7년 당 대회가 끝나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이후 중국 6세대 지도자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전제가 있다. 공산당이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온 인선의 ‘제도화’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만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산당 최고 지도층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한 지도자가 정부의 직위에서 연임을 초과하지 못한다’(1982년 개정 헌법)는 규정 외에는 명문화된 법제도

리잔수·리위안차오·장춘셴 등 물망 60년대생 쑨정차이·후춘화도 유력 관례 깨고 군인·여성 선발할지 관심 태자당 등 파벌 간 힘의 균형도 주목

가 없다. 최고 지도자 시 주석의 의지에 따라 관례는 관례로 그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제19차 당 대회는 그동안 권력 강화에 힘을 주어온 시진핑 집권 2기가 ‘인 영도 체제’를 강화할 것인가, 혹은 그동안 점진적으로 당이 이뤄온 인선의 ‘제도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상무위원 7인의 윤곽에 대한 예상 역시 두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집권 2기 1인 체제 강화될지 주목

먼저 소위 ‘제도화’라고 불리는 내부 규정에 비추어 상무위원회의 인선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자오후지(趙虎吉)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하고 투명하지 않은 선발 요건이 많이 있지만 제17차 당 대회 때 도입된 ‘민주추천회(民主推薦會)’ 제도와 함께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 선

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첫째, 정치국 상무위원은 주로 정치국위원(혹은 후보위원) 중에서 선발된다. 이 선발 요건에 의하면 18대 정치국위원 25명 중에서 차기 상무위원 7명이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치국위원을 두 번 이상 역임한 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8대 정치국위원 18명 중 리위안차오(李源潮)와 왕양(汪洋)이 새로 상무위원에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7상8하의 불문율이다. 즉 당 대회 시점을 기준으로 만 67세면 상무위원이 될 수 있고 68세면 은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18대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2명을 제외한 5명은 은퇴해야 하고 정치국위원 중에서도 류옌둥(劉延東)·마카이(馬凱)·리젠궈(李建國) 등 6명이 상임위원에 선발될 가능성은 낮다.

넷째, 지방 경험 유무 차원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은 2개 이상의 당 서기와 성장 혹은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선발 요건에 의하면 류치바오(劉奇葆)·쑨정차이(孫政才)·왕양·장춘셴(張春賢)·자오러지



왕치산



왕후닝

(趙樂際)·리잔수(栗戰書)·후춘화(胡春華) 등이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보직 순환 경험이다. 상무위원은 두 개 성(省) 이상 간의 보직 순환, 중앙과 지방 간의 보직 순환, 중앙의 2개 이상 부문의 보직 순환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선발 요건에 의하면 왕후닝(王滬寧)과 한정(韓正)이 선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시진핑과 리

커창을 제외한 5개의 상무위원 자리에 선발될 가능성이 큰 인사는 리잔수·리위안차오·장춘셴·류치바오·왕양·자오러지·쑨정차이·후춘화 등 8명이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발탁할 수도

하지만 이런 선발 요건은 18대까지 상무위원들의 경력을 귀납적으로 정리한 것과 당 내 불문율을 따른 것일 뿐이다. 즉 여러 정치적 고려에 의해 다른 인사가 상무위원으로 선발될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차기 상무위원 인사 구성에서 시진핑이 어떤 선택을 할지 ‘현실적인’ 관전 포인트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치산(王岐山)의 유임 여부다. 중국 공산당의 7상8하 불문율에 의하면 왕치산(68)은 상무위원에 유임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경제통인 그는 당초 상무 부총리를 맡아 리커창 총리를 보좌하며 경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부패 척결을

상무위원 후보로 꼽히는 중앙정치국위원



리잔수(栗戰書)

1950년생  
허베이성 평산(平山) 출생  
중앙판공청 주임



리위안차오(李源潮)

1950년생  
장쑤성 려수이(澧水) 출생  
국가부주석



장춘셴(張春賢)

1953년생  
허난성 위저우(禹州) 출생  
신장자치구 서기



류치바오(劉奇葆)

1953년생  
안후이성 쑤송(宿松) 출생  
중앙선전부장



왕양(汪洋)

1955년생  
안후이성 쑤저우(宿州) 출생  
국무원 부총리



자오러지(趙樂際)

1957년생  
산시성 시안(西安) 출생  
중앙조직부장



쑨정차이(孫政才)

1963년생  
산둥성 롱청(榮成) 출생  
충칭시 서기



후춘화(胡春華)

1963년생  
후베이성 우펑(五峰) 출생  
광둥성 서기

중국 공산당의 미래

## 대중의 분노에 강압적 대응, 참여 욕구 커져도 일당지배 가능할까

케리 브라운

런던 킹스칼리지 중국 연구소 디렉터

21세기의 중국 공산당은 관료적이고 전문가 중심이다. 기업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통치 조직이다. 공산당원의 숫자는 8800만 명이나 되며 최고위 지도자들은 대부분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공산당 엘리트들은 공산당이 국가 전체를 이끌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이른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 같은 개념은 1990년대부터 강조됐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사회를 ‘통치’하고 있지 않다. 통치의 주체는 국가 권력, 즉 27개의 중앙정부와 31개 지방의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 행정 지역 등이다. 적어도 헌법상에서는 국무원이 중앙인민정부이며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정 인력을 배치하고 정치적 틀을 짜는 것이 바로 공산당이다.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공산당은 중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신념 체계와 미래 목표를 제시한다. 시진핑(習近平) 시대에 들어 국가의 목표는 더 명확하게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공산당은 특히 두 가지 중요한 면을 장악하고 있다. 즉 주요 기구의 지도자들을 임명

할 수 있는 권한과 이념 및 정보유통의 권한이다. 중앙조직부에서는 국영 기업의 최상위 임원이나 정부 조직, 그리고 기타 조직의 최상위 지도자들을 임명한다. 이를 통해 단합과 충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에 당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는 서구적 형태의 정치적 개혁과 민주주의와는 반대 방향으로, 당의 내부적 응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방식은 속도나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소련 같은 나라에서는 공산당이 결국 실패한 데 반해 중국 공산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당당히 살아남은 까닭은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와 유연함 때문이라

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 공산당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 더 있다. 공산당은 군대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중국의 군대라기보다는 당의 군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산당은 자체의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국 법원이나 외부 세력이 이에 대한 어떤 이견도 제시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공산당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다. 89년 이래 공산당의 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도 좌절시켰으며 시진핑 지도체제하에서 이 같은 권력 강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다.

78년 이래로 중국은 경제적 성공을 내세우며 이 같은 권력 강화를 정당화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민족주의와 유가 사상 같은 중

국 전통문화를 강조하며 정당성을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거처온 방식이 세계 역사에 전례 없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도자들도 중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사회를 이끌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실할 수 없다. 중국 통치 체계의 강점은 단기·중기의 거시 경제와 정치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물질적 자원과 리더십 자원을 집중 투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인도처럼 유연하지 못한 국가모델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한다. 이들은 대중의 여론 혹은 분노에 감압적인 방법